

“나이드니 어려워”…커지는 디지털 격차에 ‘작아진’ 노인들

코로나시대 키오스크·무인상점 등 비대면 서비스 증가 고령 소비자들 대상 정보화 교육…“디지털 소외 없어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에 따라 각종 시설에서 무인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소비자들의 경우 새로운 거래 방식에 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분위기다.

지난 1일 오전 광주 서구 종합버스터미널.

이곳에는 아침 일찍부터 전남 등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한 승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직원이 앉아있던 매표 창구는 모습을 감췄고, 이를 대신해 무인 발권 기기가 버스 시간표 아래로 길게 늘어섰다.

미리 핸드폰 앱을 통해 예매를 마친 청년층은 매표 창구에 들르지 않고 곧바로 탑승구로 향했다.

하지만 고령층인 어르신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불편 해소를 위해 안내 직원이 대기하며 매표를 도왔지만, 적응하기 힘들다며

불편 목소리가 이어졌다.

직원의 도움으로 차표를 구입했다는 신모(80)씨는 “여기엔 도와주는 직원이라도 있어 망정이지 도움 요청마저 힘든 곳이 많다”며 “저번 날은 햄버거 하나 사 먹으러 갔다가 기계 앞에서 한참을 찢찢했다. 직원들이 바빠 보여 그냥 포기하고 돌아온 적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직원 없는 가게인 이른바 ‘무인 점포’도 우후죽순 생겨나는 추세다.

이날 오후 서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출입부터 구입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QR코드를 입력해야 출입문이 열렸고, ‘키오스크’를 통해서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사든 20대 남녀가 가게에서 나오자 한 노인이 이를 지긋이 지켜봤다.

김모(78)씨는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니 물건을 살 수나 있겠느냐”며 “우리같은 노인들은 기계로 주문하는 상점이면 바로 다른 데 가자고 나와버리기 일쑤”라고 쓸쓸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전자상거래나 키오스크를 통한 비대면 거래 경험이 있는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키오스크를 이용해 본 고령소비자(81.6%)는 키오스크 이용 난이도를 평균 75.5점으로 평가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매우 쉬움’을 의미한다.

업종별 키오스크 이용 난이도를 평가한 결과, 업종별로는 ‘유통점포’(71.9점) 키오스크를 가장 어려워했고, 이어서 ‘병원’(73.9점), ‘외식업’(74.6점), ‘대중교통’(74.7점), ‘문화시설’(78.8점), ‘관공서’(79.5점) 순이었다.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한 점(중복응답)으로는 ‘복잡한 단계’(51.4%, 126명)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찾기 어려움’(51%, 125명), ‘뒷사람 눈치가 보임’(49%, 120명), ‘그림·글씨가 잘 안 보임’(44.1%, 10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보화·무인화 환경의 변

화에 발맞춰 고령층 이용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손명동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시대가 변하면서 무인화 확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며 “비대면 시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층 정보 소외 해소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경로당, 복지관 등에서의 일대일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인터넷 줌 활용법 등의 교육을 단계적, 전략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어르신들이 정보화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진기자

전남대·조선대병원 등 파업 돌입…의료 불편 잇따라

보건노조 협상 타결에도 강행 인력 확충·정규직화 등 요구

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지역민들의 의료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

2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 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호남권역 재활병원 등 4곳이 파업을 강행했다.

이들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인력 충원, 임금 인상 등 개별 조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업 참여 인원은 모두 2천여명 정도로 추정된다.

응급실과 코로나19 관련 진료, 수술실 등의 필수인력은 관련법에 따라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지만, 외료환자 진료는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 진료에 대해서 예약이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한 병원 관계자는 “당장 외래 환자들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조와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정상진료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제13차 노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노조총연합 전남대병원지부와 조선대병원지부는 2일 인력난과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을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조선대병원 노조원들의 파업 행진 모습. /연합뉴스

정실무교섭회의’를 벌인 끝에 이날 오전 2시쯤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감염병전문병원 조속한 설립·생명안전수당 제도와 ▲공공병원 시설·장비·인력 구축 및 공익적 적자 해소

▲중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불법 의료 근절 ▲의사 인력 확충·공공의대 확충 등 22개 안전 중 17개 안전에 대해 의견을 좁혔다.

이 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

련 ▲공공의료 확충 세부계획 ▲간호사대 환자 비율 법제화 등 일부 사업에 대선만 바지까지 이견을 보였으나, 당협협의회에 보건의료노조가 함께 참여하기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김동수기자

경찰, ‘주정차 과태료 무마’ 서구청 압수수색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당하게 면제해 준 혐의로 공직자 17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광주 서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오전 서구청 교통지도과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미 광주시 감사와 서구청 자체 조사

로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지만,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정차 관련 보강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구청 일부 공직자들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동료 직원 등의 청탁을 받고 주정차 과태료를 무단 면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조사를 통해 전·현직 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청탁까지 포함해 총 4천169건의 부적절한 과태료 면제 사례를 적발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 구체적인 혐의 입증에 나설 방침이다.

/최명진기자

광주경찰, 코로나 유흥시설 불법영업 ‘철폐’

최근 2개월간 31건·133명 적발…9월까지 연장

광주경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최근 2개월간 불법영업 특별단속을 벌여 총 31건·133명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유흥시설 밀집지역에 경찰서 점검반 외에도 경찰관기동대 다수 인력을 투입, 가시적 순찰을 통해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활동을 벌였다.

주요 단속사례로 지난달 24일 광산구 첨단지구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에 몰래 영업한 홀덤펍 업주와 손님 등 30명을 적발했다.

앞서 7월27일에는 상무지구 거리에서

손님을 호객행위로 유인해 영입이 금지된 시간에 유흥주점에서 몰래 영업한 업주와 손님 등 18명을 감염병예방법 등으로 단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진자 연일 네 자릿수를 유지하는 등 다가를 추석연휴가 4차 유행의 중대한 변곡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특별단속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김준철 광주경찰청장은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되는 현시점에서 정부의 방역정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경찰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수기자

광주고검, 흥기 난동 40대 구속기소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난입해 흥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9일 오전 9시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지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 B씨를 길이 1m가량(손잡이 포함) 흥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경남 자택에서 차를 몰고 연고가 없는 광주고검에 찾아와 흥기 난동을 부렸다.

공사로 인해 법원 정문이 폐쇄된 상태에서 검찰 정문 주차차단기를 들어받고 청사로 침입해 “판사실이 어디냐”며 직원을 위협했다.

A씨는 8층에서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복도로 나오던 B씨와 마주치자 옆구리와 등을 찔렀으나 B씨에 의해 제압당했다.

경찰은 애초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A씨가 반복해서 흥기를 휘둘렀고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공격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을 지시하는 환청을 들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8층에 높은 사람들이 있어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A씨가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의 첫 재판은 다음달 6일 열린다.

/김동수기자

TIME CITY

명품시계수리전문점

명품브랜드 시계 수리전문점 타임시티 (TIME CITY)

- 책임 A/S
- 명품 쿼츠 시계 수리전문
- 오토매틱 수리 전문
- 스위스, 독일 시계 수리장비 최다보유 (A/S센터와 동일장비 보유)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영업시간 평일 10:00 - 20:00 공휴일·토요일 10:00 - 18:00 일요일 휴무

문의 010-8475-5472 * 근무시간에만 통화가능

광주 광산구 첨단강변로 100 (쌍암동 695-1)

급매 전문

늦으시면 앓아하십니다

[상가주택]

- 고창 공음면 (2차선 포장도로변) 법성포, 가마미해수욕장 근거리
- 대지3,707㎡ 가공공장,창고,판매장3개동
- 매가:6억8,000(시세50%)
- ***가든경관비집,농산물직판장,휴게소종합매장 최적

[화순군 화순읍 대리 동호인주택지]

- 광주에서10분
- 자연녹지 6,600㎡
- 급매가:5억3,800만원(시세50%)
- ***동호인주택4~6동 개발 최적

급히 구합니다 --- 손님 다수 대기중입니다

- 병원신축용땅 1,000㎡ 내외
- 월세 및 투자용 상가 건물 10억~50억
- ***부동산 무엇이던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 **유재관** 010-6495-3787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